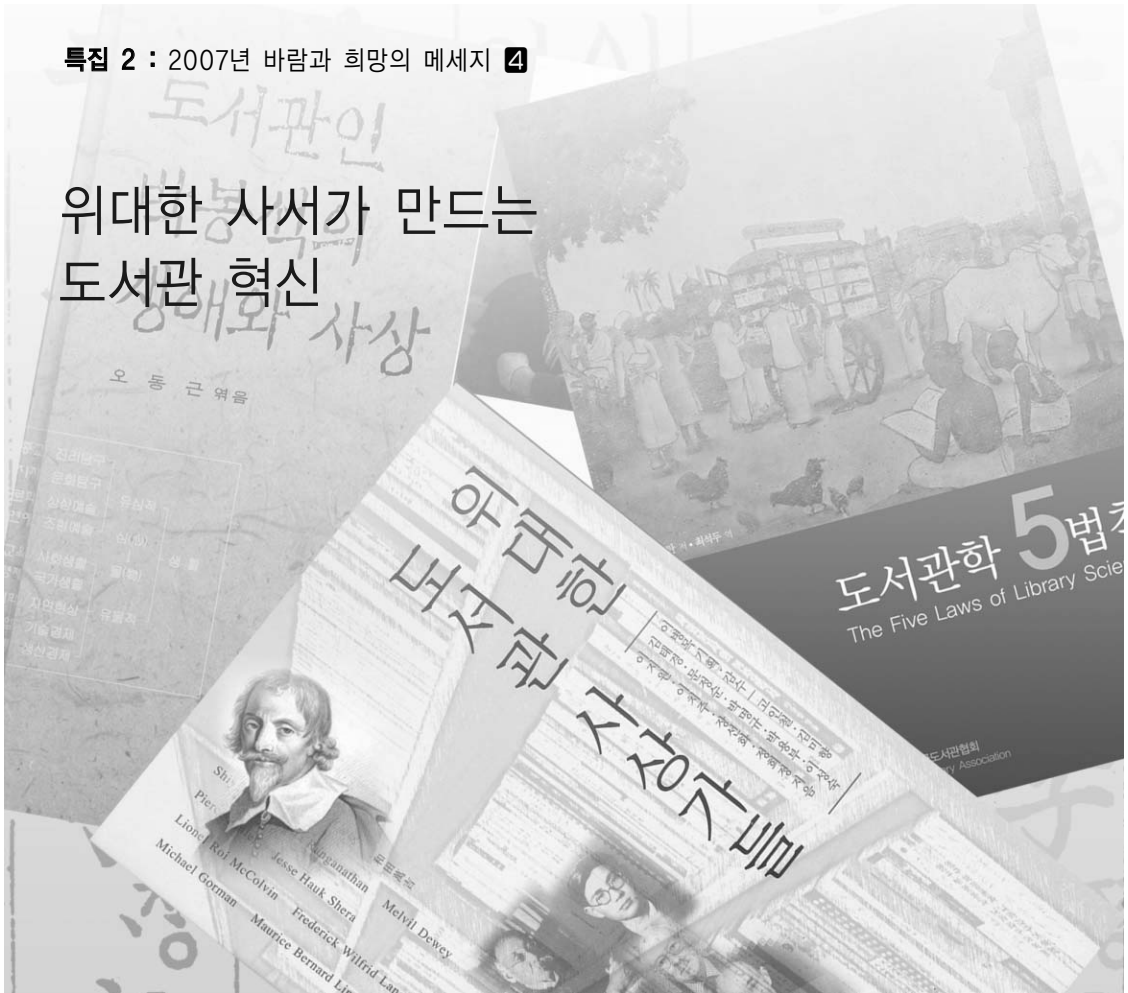


특집 2 : 2007년 바람과 희망의 메세지 4

위대한 사서가 만드는 도서관 혁신



이정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iblueguy@naver.com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도 있었지만, 도서관과 사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강의도 있었다. 도서관, 그곳은 세상을 움직이는 곳이다. 좋은 책은 영혼의 피를 돌게 하고, 도서관만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도서관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곳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위대한 사서없이 존재하는 위대한 도서관은 없다”는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바로 문헌정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브리엘 노데처럼... 내가 생각한 도서관 혁신 방안은 바로 이런 위대한 사서들을 만드는 것이다. 도서관의 혁신에 있어 여러 방법이 있다. 직접적인 이용자서비스 개선, 주제화 도서관 등 많은 방법이 있다. 이것은 직접적이기에 빠른 시간 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

지만 나는 진정으로 도서관의 혁신을 위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주저 없이 사서들의 혁신을 통해 사서들이 만드는 위대한 도서관이야말로 도서관의 가장 큰 혁신이 아닐까 싶다.

위대한 사서를 만드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서는 그저 아저씨, 아줌마가 아닌 전문직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지식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보여주는 도서관, 그런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사서들에 대한 인식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런 전문직이 아닐까? 그 이유는 보통의 사람들은 사서의 업무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힘든 일인지 모른다. 아니 아는 게 이상하고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 잘못된 사서와 문헌정보학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된 것은 사서의 인식전환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이다.

위대한 사서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상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변화에 참여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쟁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 정책결정권자들이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도서관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용자의 편의와 도서관의 제 기능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변화를 외치면서 참여해야 관련된 단체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정책결정권자들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예전 많은 선배들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를 통해 도서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사서가 책을 단순히 빌려주거나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인이라면 사서들도 많은 사회참여를 필요로 한다. 물론 필자가 말하는 참여는 시위현장에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답게 펜으로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대항하는 것이다. 사서라는 이름을 내걸고 신문에 글을 투고하거나, 우리와 관련된 여러 시사토론 프로그램 등에 참석해 사서들의 입장과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스타사서'이다. 매스미디어 사회에서 '스타'가 가지는 대중적 영향력은 실상 어마어마하다. 그렇기에 매스미디어의 생리를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타사서'가 탄생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이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편리한지를 알려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많은 문제에 있어 사서를 대변하는 해결사로서 그 역할이 무궁무진 할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사서는 더 좋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맞이해야 한다. 질 좋은 서비스는 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에 소홀히 한다면 사서의 자질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했던 사서의 인식전환, 사회참여, 이용자 서비스 개선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서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서협회'가 될 것이다. 물론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서의 인식변환과 도서관의 변화를 위해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서 전체 숫자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 같다. 1990년대 시도했던 '전국사서협회'의 예에서 보듯이 사서들의 모임



은 아직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 변호사협회등 이러한 협회처럼 사서협회가 사서들의 권익증진과 조직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면 이것은 사서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약해도 조직은 강한 것처럼 사서협회가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도서관법」이 개정된 시점이고 사회가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에 사서들의 참여가 엄청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바꾸겠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10년후의 후배들, 20년후의 후배들처럼 앞으로

우리의 뒤를 따라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을 먼저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한 선배로서 사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도서관 변화기에 최적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배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사서를 무시한다고 절망하기 전에 자신은 사람들에게 사서의 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자신의

신념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 이제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직접 뛰어나다면서 이용자와 그리고 사서를 위한 그날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 직접하지 못할 것 같다면 사서들의 조직을 만들고 가입해서 이러한 실천가들을 지지하라. 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사서들의 지지를 받은 실천가들은 당신이 하기 힘든 여러 일들을 대행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사서협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사서가 단순히 책을 정리하는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이상적인 도서관을 만들고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며 미래를 여는 지식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사서들이 만드는 가장 큰 혁신이 될 것이다. (㉠)